

## 김현미 장관 “어린이 눈높이에서 보는 국토교통 정책기사 기대”

### 어린이기자단 발대식 참석·놀이형 교재·가상현실VR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도 참여
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5월 2일(수) 오후 2시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하는 국토교통부 제6기 어린이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이들을 격려하고,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에도 참여한다.
- 이번 6기 어린이 기자단에는 총 90명을 선발했으며, 수도권을 비롯해 영남, 호남, 제주 등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어린이까지도 참여할 예정이다.
  -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 기자 대표는 국토교통부 기자로서의 각오를 다짐하는 선서문을 낭독하고 위촉장을 수여받는다.
  - 이외에도 대학생,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 기자 55명을 선발했으며, 주요 정책 현장을 방문해 취재를 진행할 계획이다.
-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“국토교통부가 하는 일은 여러분 생활속 어디에서든 만날 수 있는 일”이라면서, “우리 부 정책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고, 국토부의 발전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전할 예정이다.
- 김 장관은 발대식이 열리는 국토발전전시관 1층 로비에 “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”의 일환으로 마련된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에도 참여한다.

- 또한, 평소에 어린이 기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궁금한 내용을 듣고 직접 답변해 주는 시간을 보내고, 마술 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단체사진을 찍는 등 기자단을 격려할 예정이다.
  
- 한편, 발대식에 참석한 어린이기자단은 기자로서의 글쓰기와 저작권에 대한 강의를 듣고, 국토교통 업무를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을 보내는 등 다양한 부대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.

2018. 5. 2.

국토교통부 대변인